

# 경제주평

-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경제적 효과  
- 소비재 수출과 그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목 차

---

## ■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경제적 효과

- 소비재 수출과 그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소비재 수출 현황 .....	2
3.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 및 방법 .....	3
4.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	4
5. 시사점 .....	7
< 참 고 > 신성질별 품목 분류 .....	9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 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저 자 : 노시연 선임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경 제 연 구 실 : 신지영 선임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Executive Summary

### □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경제적 효과

- 소비재 수출과 그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 개 요

최근 빅리그로 진출한 스포츠 스타들이 주목받으면서 이들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효과 창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 스포츠는 오래전부터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소위 빅리그라고 일컫는 프리미어리그(영국), 라리가(스페인), 분데스리가(독일), 세리에 A(이탈리아), 리그 1(프랑스) 등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만큼 파급력이 크다. 최근 김민재, 이강인 등 빅리그로 진출한 선수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향후 그들의 활약과 그로 인한 국가 위상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빅리그 스포츠 스타인 손흥민을 기준으로 소비재 수출 증대 효과 및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 소비재 수출 현황

최근 소비재 수출은 글로벌 교역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소비재 수출은 최근 총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내구소비재가 높은 비중을 보이는 동시에 직접소비재 및 비내구소비재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며 품목이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소비재 수출의 호조세는 한류 확산의 긍정적 영향을 시사한다. 스포츠의 대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빅리그 스포츠 스타들을 통한 소비재 수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

#### ■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 및 방법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기여도, 소비재 수출 규모 및 구성비,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에 대한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기여도를 0.24%p로 추정하였고, 2022년의 소비재 수출 규모 및 구성비가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2019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상의 산업연관효과가 현재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

#### ■ 경제적 효과 추정 결과

##### ① 소비재 수출 증대 효과

빅리그로 진출한 스포츠 스타가 기여하는 소비재 수출은 약 2,700억 원(승용차 수출 대수로 환산 시 약 9,800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빅리그 스포츠 스타로 인해 한국의 인지도 및 호감도가 상승함으로써 소비재 수출은 약 2,7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직접소비재,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가 각각 310억 원, 1,860억 원,

530억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직접소비재 중 음식료품, 내구소비재 중 운송장비, 비내구소비재 중 화학제품이 각각 160억 원, 1,380억 원, 3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 ② 소비재 수출로 인한 파급효과

빅리그 스포츠 스타를 통한 소비재 수출 증가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약 5,9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약 1,840억 원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리그 스포츠 스타 기여 소비재 수출액인 2,7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결과,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5,9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84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로별로는 직접소비재 중 음식료품, 내구소비재 중 운송장비, 비내구소비재 중 화학제품을 통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 빅리그 스포츠 스타를 통한 소비재 수출 증가의 파급 경로별 효과 >

(단위: 억 원, %)

파급 경로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비중		비중
농림수산물	270	4.7	120	6.7
음식료품	360	6.1	120	6.7
섬유 및 가죽제품	260	4.4	80	4.1
목재 및 종이 인쇄	50	0.8	20	0.9
화학제품	570	9.7	180	9.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10	3.5	80	4.6
전기장비	280	4.7	90	4.9
운송장비	3,300	56.0	940	51.3
기타 제조업 제품	600	10.2	200	10.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비중은 전체 생산유발액, 전체 부가가치유발액 대비 각 파급경로별 비중을 의미.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소비재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계약 기간(평균 5년)을 고려하면 1인당 총 경제적 효과는 향후 수출 증가액 1조 3,500억 원과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 2조 9,5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9,200억 원 등으로 스포츠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더욱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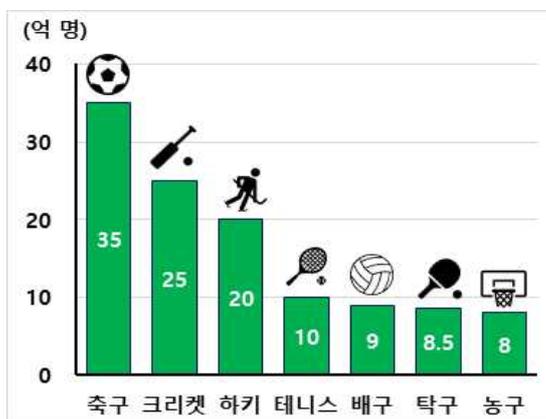
## ■ 시사점

빅리그에 진출하는 스포츠 스타의 활약과 그에 따른 국가 위상 제고 및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스포츠를 한류의 분야로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스포츠를 포함한 한류의 성장이 소비재 수출 확대로 이어져 국내 수출 구조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스포츠 스타를 통한 한국의 위상 제고 효과가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광 수요와 국내 투자 유치 홍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개요

- 최근 빅리그로 진출한 스포츠 스타들이 주목받으면서 이들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효과 창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
  - 스포츠는 오래전부터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전 세계적 관심을 받는 빅리그는 파급력이 큼
    - 근래에는 문화 콘텐츠 등을 통한 국가 인지도 상승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 전부터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스포츠는 국가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 기여도는 여전히 유효함
    - 그중에서도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소위 빅리그라고 일컫는 프리미어리그(영국), 라리가(스페인), 분데스리가(독일), 세리에 A(이탈리아), 리그 1(프랑스) 등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만큼 파급력이 큼
  - 최근 김민재, 이강인 등 빅리그로 진출한 선수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향후 그들의 활약과 그로 인한 국가 위상 제고가 기대되고 있음
    - 향후 선수들의 활약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대표적인 빅리그 스포츠 스타인 손흥민을 기준으로 소비재 수출 증대 효과 및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



자료 : WorldAtlas.

주 : 각 스포츠의 팬 수로 인기를 추정.

< 빅리그 소속 선수 >

빅리그	선수명	소속 구단
프리미어 리그	손흥민	토트넘 홋스퍼
	황희조	노팅엄 포리스트
	황희찬	울버햄튼 원더러스
	김지수	브렌트포드
분데스리가	이재성	1. FSV 마인츠 05
	김민재	FC 바이에른 뮌헨
	정우영	VfB 슈투트가르트
리그 1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자료 : 각 리그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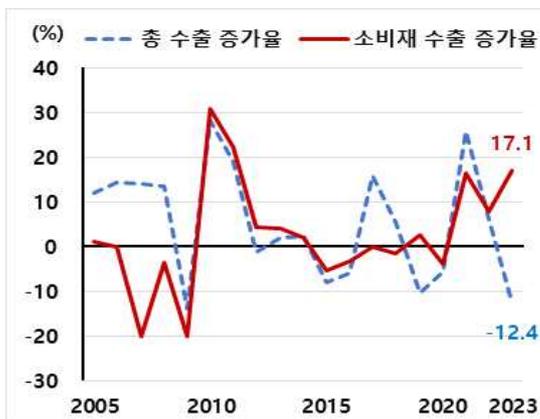
주 : 2023/24 시즌 기준.

## 2. 소비재 수출 현황1)

### ○ 최근 소비재 수출은 글로벌 교역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크게 확대

- 소비재 수출은 최근 총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
  - 소비재 수출 증가율은 2022년 8.0%에 이어 2023년 상반기 17.1%로 성장세가 확대되어 총수출 증가율(2022년 6.1%, 2023년 상반기  $\Delta$ 12.4%)을 크게 상회
-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내구소비재가 높은 비중을 보이는 동시에 최근 직접소비재 및 비내구소비재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며 품목이 다변화되는 모습
  - 자동차, 가전제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내구소비재는 전체 소비재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5~84.8%의 높은 수준을 지속
  - 직접소비재(식료품 등)와 비내구소비재(의류, 화장품 등)의 비중은 2005년 각각 4.3%, 10.9%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 10.2%, 17.3%까지 확대
- 이와 같은 소비재 수출의 호조세는 한류 확산의 긍정적 영향을 시사함
  - 최근 대외 환경 악화로 전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한류 관련 품목과 밀접하게 관련된 소비재 수출의 경우 유일하게 성장세를 유지2)
  - 스포츠의 대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빅리그 스포츠 스타들을 통한 소비재 수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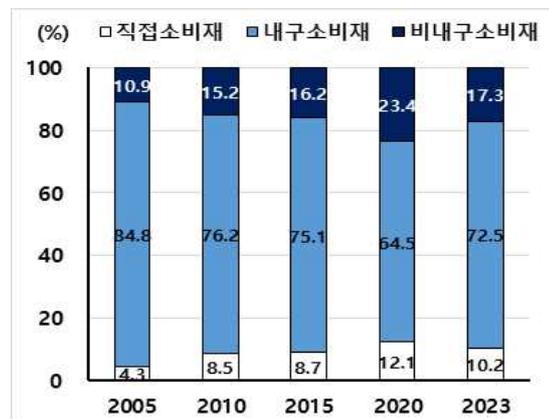
< 총수출 및 소비재 수출 증가율 >



자료 : 관세청.

주 : 2023년은 2022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 증가율 기준.

< 총 소비재 수출 대비 성질별 비중 >



자료 : 관세청, 현대경제연구원.

주1) 2023년은 상반기 누적액 기준  
주2) 간이세율적용분 제외.

1) 소비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분류는 p.9의 <참고> 신성질별 품목 분류를 참조.

2) 2023년 상반기 수출 증가( $\Delta$ 12.4%) 기여도: 소비재(2.1%p), 원자재( $\Delta$ 5.6%p), 자본재( $\Delta$ 8.8%p).

### 3.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가정 및 방법

○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기여도, 소비재 수출 규모 및 구성비,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추정

-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기여도)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에 대한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기여도를 0.24%p로 추정

- '2022년도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 하면 연상되는 인물로 손흥민을 꼽은 비율은 3.5%임
- 2015년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에 진출한 손흥민이 7년 후 3.5%의 인지도를 기록한 것이므로 인지도가 1년에 0.5%p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손흥민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지도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가정
- 또한, 동 조사에 따르면 국가 인지에서 제품 이용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48.7%로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에 대한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기여도를 약 0.24%p(= 0.5%p × 48.7%)로 추정

- (소비재 수출 규모 및 구성비) 2022년의 소비재 수출 규모 및 구성비가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

- 2022년 소비재 수출액은 약 860억 달러로 2022년 기준 원·달러 환율(1292.2 원)을 적용하여 환산하면 약 110조 9,630억 원임
- 2022년 소비재 수출 구성을 산업연관표의 상품분류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소비재 수출이 음식료품(6.0%), 운송장비(51.0%), 화학제품(11.2%) 등으로 구성된다고 가정

- (산업연관표) 2019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상의 산업연관효과가 현재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연관효과를 활용하여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

<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식 >

빅리그 스포츠 스타 기여 소비재 수출액 (음식료품,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	×	생산유발계수 또는 부가가치유발계수	=	생산유발액 또는 부가가치유발액
---	---	--------------------------	---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4. 경제적 효과<sup>3)</sup> 추정 결과

##### ① 소비재 수출 증대 효과

○ 빅리그로 진출한 스포츠 스타가 기여하는 소비재 수출은 약 2,700억 원인 것으로 추정

- 빅리그 스포츠 스타로 인해 한국의 인지도 및 호감도가 상승함으로써 소비재 수출 또한 약 2,7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빅리그 스포츠 스타 기여 소비재 수출액 =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기여도 × 소비재 수출액 = 0.24%p × 110조 9,630억 원 = 2,700억 원

- 빅리그 스포츠 스타 기여 소비재 수출 중 직접소비재,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가 각각 310억 원, 1,860억 원, 530억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빅리그 스포츠 스타 기여 소비재 수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구소비재는 1,860억 원(68.9%)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그 다음으로는 비내구소비재 530억 원(19.6%), 직접소비재 310억 원(11.5%)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세부적으로는 직접소비재 중 음식료품, 내구소비재 중 운송장비, 비내구소비재 중 화학제품이 각각 160억 원, 1,380억 원, 300억 원 증가할 전망

< 빅리그 스포츠 스타 기여 소비재 수출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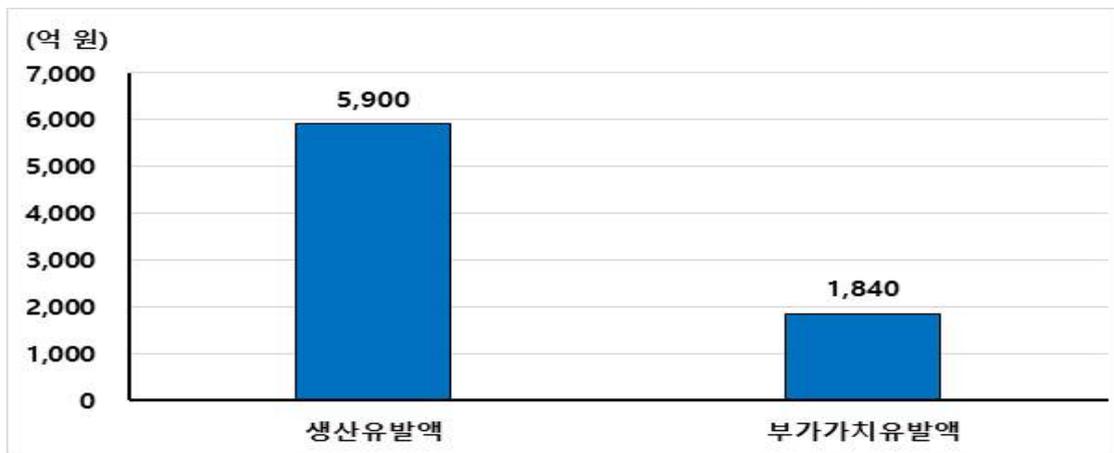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3) 본고의 경제적 효과는 1년 단위로 추정한 결과임.

② 소비재 수출로 인한 파급효과

- (거시경제적 효과) 빅리그 스포츠 스타를 통한 소비재 수출 증가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약 5,900억 원 등의 영향을 미침
-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한국 인지도 향상 기여에 따른 소비재 수출액 증가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5,9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840억 원 수준
  -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빅리그 스포츠 스타 기여 소비재 수출액인 2,7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
  - 분석 결과,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5,9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840억 원인 것으로 추정

< 빅리그 스포츠 스타를 통한 소비재 수출 증가의 거시경제적 효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경로별 효과) 경로별로는 직접소비재 중 음식료품, 내구소비재 중 운송장비, 비내구소비재 중 화학제품을 통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운송장비) 파급 경로 중 운송장비는 내구소비재 관련 부문은 물론 전체 파급 경로 중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운송장비 수출 증가분은 약 1,380억 원으로 이를 통해 생산유발액 약 3,3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약 94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
  - 이는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의 56.0%, 부가가치유발액의 51.3% 수준으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화학제품) 화학제품은 비내구소비재 관련 부문 중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파급 경로인 것으로 분석
  - 화학제품 수출 증가분은 약 300억 원으로 이를 통해 생산유발액 약 57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약 18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
  - 이는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의 9.7%, 부가가치유발액의 9.9% 수준으로 비내구재 관련 부문 중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파급 경로인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운송장비와 화학제품 외에도 기타 제조업 제품, 농림수산물 및 음식료품 등 파급 경로에 의한 경제적 효과 또한 상당한 것으로 추정

< 빅리그 스포츠 스타를 통한 소비재 수출 증가의 파급 경로별 효과 >

(단위: 억 원, %)

파급 경로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생산유발액	비중	부가가치유발액	비중
농림수산물	270	4.7	120	6.7
음식료품	360	6.1	120	6.7
섬유 및 가죽제품	260	4.4	80	4.1
목재 및 종이 인쇄	50	0.8	20	0.9
화학제품	570	9.7	180	9.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10	3.5	80	4.6
전기장비	280	4.7	90	4.9
운송장비	3,300	56.0	940	51.3
기타 제조업 제품	600	10.2	200	10.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비중은 전체 생산유발액, 전체 부가가치유발액 대비 각 파급경로별 비중을 의미.

- (전망)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소비재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평균 계약 기간(약 5년)을 고려하면 1인당 총 경제적 효과는 향후 수출 증가액 1조 3,500억 원과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 2조 9,500억 원 등으로 추산
- 향후 5년간 빅리그 스포츠 스타 1인의 한국 인지도 향상 기여에 따른 총 소비재 수출 증가액 1조 3,500억 원은 파급 경로를 통해 생산유발액 2조 9,5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9,200억 원 등의 효과를 창출할 전망
- 또한, 현재 유럽 리그 진출 선수 규모(빅리그 8명, 리그 전체 17명) 등을 고려할 경우, 스포츠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더욱 상당할 것으로 기대됨

## 5. 시사점

- 빅리그에 진출하는 스포츠 스타의 활약과 그에 따른 국가 위상 제고 및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

첫째, 스포츠를 한류의 분야로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2022년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평소 접촉량이 많은 분야로 스포츠를 꼽은 비중이 43.6%이며, 최근 축구, 야구 등에서 많은 선수가 해외 리그에 진출하면서 스포츠가 한국 인지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전망
- 이에 대중문화에 치중된 한류 관련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스포츠가 한류의 새로운 분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한 글로벌 전략 구축은 물론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
- 특히, 차세대 꿈나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육성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둘째, 스포츠를 포함한 한류의 성장이 소비재 수출 확대로 이어져 국내 수출 구조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비재의 경우 대외 수급 환경 및 교역환경 등에 민감한 원자재, 자본재와 달리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특징이 있음
- 대외거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스포츠를 포함한 한류와 소비재 수출 간 연계 효과가 구축될 경우, 소비재 수출 증가는 물론 수출 구조의 안정성까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국내 유망 소비재 제품 및 기업이 스포츠 등을 포함한 한류와 연계 채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양성 등의 노력이 동반될 필요

셋째, 스포츠 스타를 통한 한국의 위상 제고 효과가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광 수요와 국내 투자 유치 홍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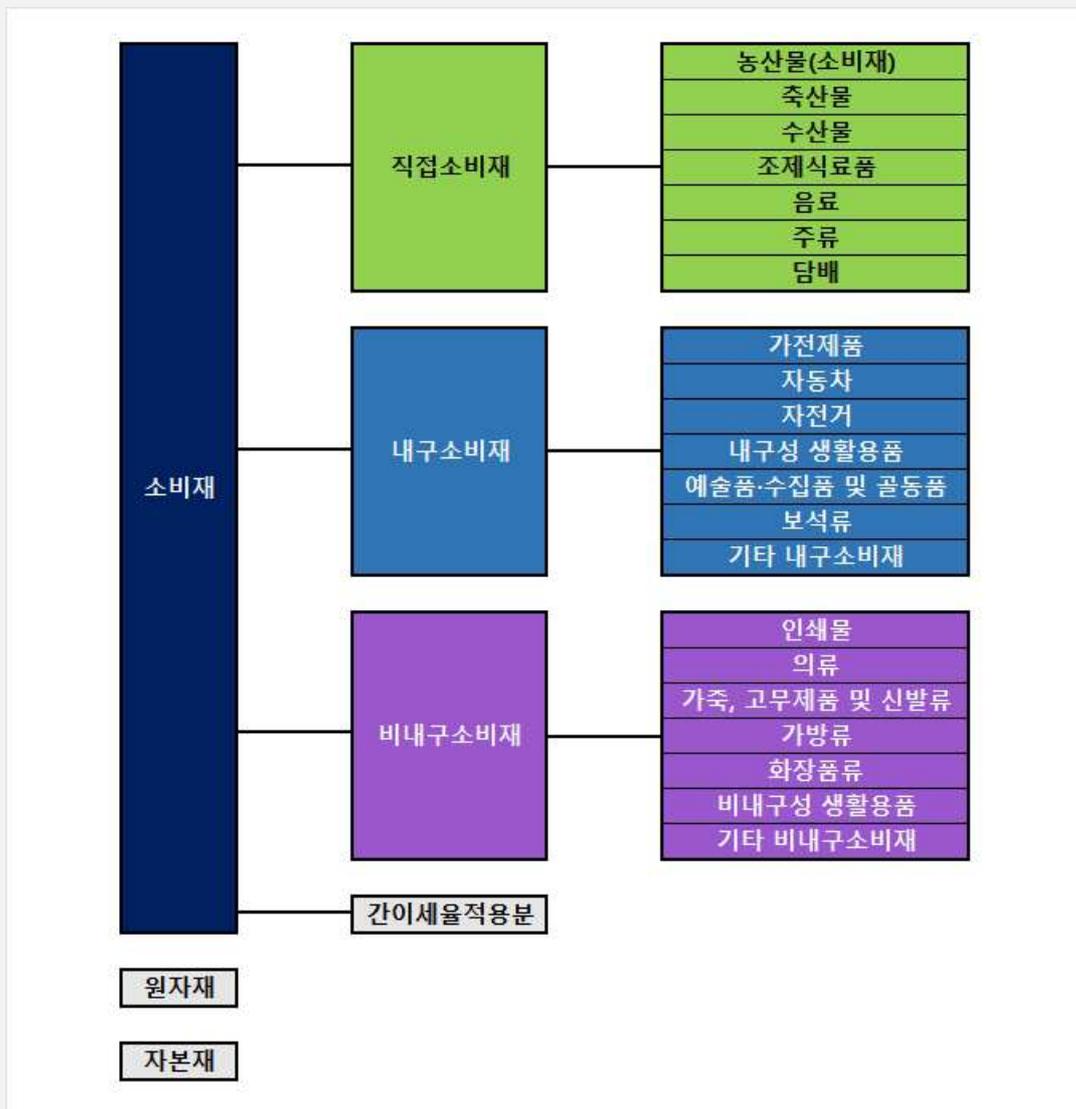
- 영국, 스페인 등 유럽 프로리그는 세계인의 관광 코스로 자리를 잡았으며 수많은 기업의 투자 또한 받는 상황
- 이를 벤치마킹하여 빅리그 스포츠 스타를 통한 한국 인지도 확대가 K리그, KBO 등 국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물론 관광 수요 및 국내 투자까지 전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선수 개인을 넘어 국가 인식 제고와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차원에서 국내 스포츠 스타 및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HRI**

노시연 선임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신지영 선임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이부형 이사대우 (2072-6306, leebuh@hri.co.kr)

< 참고 > 신성질별 품목 분류

- 소비재란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로, 원자재(생산의 원료가 되는 자재), 자본재(생산 기계나 생산 수단을 만들어내는 재화) 등과 구분됨
- 특히, 관세청의 신성질별 품목 분류에 따르면 소비재는 직접소비재, 내구소비재, 비내구소비재 등으로 구분됨
  - 직접소비재 : 사용 즉시 소멸되는 제품
  - 내구소비재 :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
  - 비내구소비재 : 상당 기간 사용 가능하지만 약 1년 이내 소멸되는 제품

< 신성질별 품목 분류 >



자료 : 관세청.